

# Style 조선일보

OCTOBER 2020  
vol.212



**ROLEX**



# SUBLIMAGE

## L'ESSENCE FONDAMENTALE

수블리마지 레쌍스 풍다멘탈

피부 강화 에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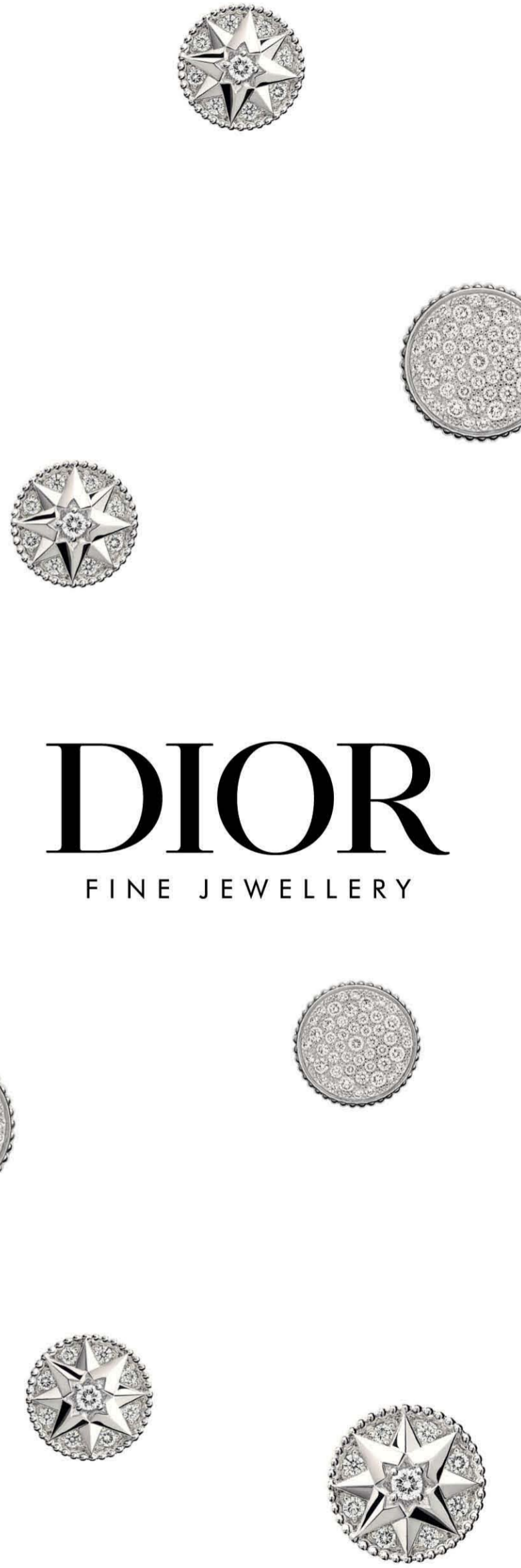
샤빌 연구소는 프랑스 알프스의 기후 조건을 견디며 강인하게 자라난 귀중한 식물에서 고유 활성\* 성분인 솔리다고를 추출했습니다. 이 성분은 피부 깊숙이 작용하여 피부 본연의 힘을 강화합니다. 수블리마지 레쌍스 풍다멘탈은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바닐라 플라니폴리아와 솔리다고 추출물을 함유한 피부 강화 에센스로, 탄탄한 피부로 가꿔주어 페이스 라인이 또렷해 보이도록 도와줍니다. 건강한 광채를 머금은 고르고 매끄러운 피부를 경험해보세요.

\* 유럽, 미국 및 일본에 특허 출원

# CHANEL

CHANEL.COM CUSTOMER CARE CENTER 080-332-2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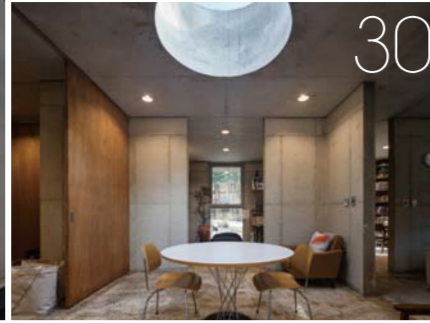
문의 02-3480-0104



# DIOR

FINE JEWELLERY

*ROSE DES VENTS*  
*AND MIMIROSE COLLECTIONS*  
White gold, diamonds and mother-of-pearl.



14

조선일보  
**Style**  
OCTOBER 2020  
vol.2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스타일, 오리지널 모델의 심플한 아름다움 계승, 그리고 디자인과 기능의 클래식한 조화.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오이스터 퍼페추얼 41, 롤렉스에서 개발한 오이스터 스틸은 부식에 강한 특수 소재로 은은한 광택이 아름답기까지 하다. 오이스터 퍼페추얼 41은 2020년 새로 출시한 칼라버 3230을 장착했으며 실버 다이얼에 오이스터 브레이슬릿을 매치했다. 문의 02-2112-1251



22



12

12 **SELECTION** 가을을 즐기는 따뜻하고 멋스러운 방법.

14 **김대수, 향구, 골목길을 거니는 예술 신책** '격변제라는 뜻을 지닌 이탈리아에서 따온 '비엔날레'. 흔히 2년마다 열리는 국제 미술전을 일컫는, 세계 각지에서 마주칠 수 있는 행사지만 코로나19라는 돌발 변수가 터진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해마다 건축, 미술전을 번갈아 펼치는 베니스 비엔날레를 비롯해 대부분 연가나 추소를 결정했다. 우리나라 '최장' 역사를 품은 부산비엔날레는 '불확실성 속 해법 찾기'를 외치며 감행을 결단했지만, 방역이 심엄했던 지난 9월 초 아쉽게도 온라인으로 개관했다. 그렇지만 다행히 '오프라인 관람'으로 전환한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오감'으로 즐길 수 있게 됐다. 문학을 토대로 음악과 시각예술을 엮은 이색적인 구성과 매력적인 다국적 콘텐츠가 돋보이는 2020 부산 비엔날레, '발품' 아깝지 않은 그 한장을 소개한다.

17 **SUPER NATURAL** 꽃과 나비, 새와 팬더, 그리고 코끼리가 모여 있는 햇살 좋은 가을.

18 **STRUCTURAL THRILLS** 독창적인 설계와 대담한 디자인으로 빛어 낸 기계식 메카니즘의 미학, 스텔레톤 워치가 전하는 황홀한 전율.

19 **GENTLEMAN'S CLOSET** 남성세대와 젊은 세대를 아우르는 감도 높은 컬렉션에 완벽에 가까운 실루엣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품위를 담았다. 장인 정신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의 가치를 녹여낸 신사의 아우핏.

20 **NEW MATES** 고유의 취향을 지닌 남성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할 다채로운 매력의 백 & 슈즈.

21 **MY STORY** 동시대 여성이 원하는 아름다움과 알렉산더 맥퀸 하우스의 아이덴티티를 접목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이상적인 모습의 '톨 스토리(Tall Story)' 백.

22 **THE TOWN COAT** 미리 만나는 올겨울 당신의 코트.

30 **경기도 광주 아홉간집** 이 집을 알게 된 후 운 좋게 몇 차례 더 방문할 기회가 생겼다. 서울에서 멀지 않지만 집 주변에 온통 너른 자연이 펼쳐지는 곳. 모든 창문에서 숲과 발이 보이는 덕에 창가에 앉아 빛만 즐기고 있어도 좋은 집. 그렇게 그곳에 있다 보면 집이 주는 위로와 따뜻함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32 **BE POSITIVE** 지금은 행복한 패션을 즐겨야 할 시간.

33 **OVERNIGHT MIRACLE** 피부 세포가 활발히 재생하는 밤, 단 한 번의 터치로 궁극의 스킨케어를 경험할 수 있는 프리미엄 나이트 케어 제품 6.

34 **EDITOR'S PICK** 환절기, 힘을 잃은 피부를 위한 특급 스킨케어.

Tod's Korea Inc. 02-3448-8201



# Style 조선일보

Issue.212 October 2020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정와은 rarara@chosun.com 에디터 | 이혜미 hmlee0909@chosun.com  
 이주이 juyi.le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정희 ih5567@chosun.com 분해 | 재판 | 라온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리는 비즈나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매일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서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학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서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 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tods.com



## 작고 똑똑한

목에 두르는 것은 물론, 손목에는 벨벳처럼, 핸드백 손잡이에는 정식으로 활용 가능한 프티 스킵프. (우부터 시계 방향으로) 코러스 프린트를 장식한 실크 스카프, 86x6cm 24만5천원 **프르다**, 문의 02-3218-5331 작은 비쿠나를 묘사한 말티콜라 프린트 실크 타이 밴드, 86x5cm 24만 원 **로코파이나**, 문의 02-546-0615 GG 플라자 프린트 실크 넥 보, 86x5cm 25만 원 **구비**, 문의 02-3452-1921 포토그래퍼 **최승현** 에디터 **장미윤**

## YOUTHFUL LUXE

클래식으로 통하는 오이스터 퍼페추얼 36에 통통 튀는 매력이란 수식어를 추가하였다. 캔디 핑크, 터키이즈, 블루, 옐로, 코랄 레드, 그린 등 다섯 가지 컬러를 다이얼에 입혀 역동적이고 활기찬 스타일을 제시한다. 여7에 크로마이트 디스플레이 기능을 새롭게 적용해 어두운 곳에서도 핸즈와 인텍스가 푸른빛을 발하도록 했다. 특히 받은 크로나지 이스케이프먼트를 적용했으며, 의심의 여지없이 정밀성과 한자상에서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칼라버 3230으로 구동한다. 6백78만원, 문의 02-2112-1251 에디터 **이주이**



## INSIGHT

편견부가 얽힌,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들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 영원히 빛나는 행운의 메시지

프레드는 주얼리를 통해 긍정 에너지가 지닌 강력한 힘을 전한다. 상스 인피니 컬렉션도 이를 대표하는 컬렉션 중 하나. 주얼리의 모티브가 되는 숫자 8은 행운을 의미하는 동시에 무한대로 이어지는 인테레이싱 루비가 영원을 상징한다. 로즈 골드 비탈에 고혹적인 루비와 우아한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눈부신 주얼리는 일상의 크고 작은 순간에 의미를 더해줄 것. 상스 인피니 루비 이어링 5백59만원, 문의 02-514-3721 에디터 **이주이**



### 극건성 탈출

건조한 봄에 공급하는 영양과 보습. (우부터 시계 방향으로) **시슬리 벨벳 나리시 바디 크림** 위드 **사프란 플라워** 약건성 피부까지 부드럽고 촉촉하게 진정·재생시키는 사프란 플라워를 함유했다. 200ml 16만원, 문의 080-549-0216 **라프라이 셀룰라어 에너지리칭 바디 스프레이** 피부 보습과 진정은 물론, 몸과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피부에 활력과 에너지를 끌어내는 보디 미스트. 100ml 19만원, 문의 02-511-6626 **사벨라셀 사벨 데오도란트 스프레이** 사벨 향수의 풍부하고 섬세한 플로럴 향을 담은 데오도란트. 100ml 5만9천원, 문의 080-332-2700 **디올 미스 디올 프래쉬 바디 크림** 로즈 오일을 함유해 산뜻하고 크림함 미스 디올 퍼플 크림. 150ml 12만3천원, 문의 080-342-9500 **자형시 뷰티 아티스틱스 오브 퍼플 비스 & 사워 오일** 상큼한 베라 허비스카스 향에서 시작해 피부리더인 아티스틱스 향과 마스코 향으로 마무리된다. 200ml 6만2천원, 문의 080-901-8500 포토그래퍼 **최승현** 에디터 **장미윤**



올 하반기 가장 기대되는 현대미술 전시로 꼽히는 장 미셸 바스키아(1960~1988) 회고전이 막을 열었다. 롯데뮤지엄에서 지난 10월 8일 시작해 내년 2월 7일까지 펼쳐지는 <장 미셸 바스키아·거리, 영웅, 예술>展. 1970년 대 말 ~1980년대 초 그래피티 아티스트로 뉴욕 거리를 활보하던 바스키아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처럼 자유분방한 화법을 구사하면서도 주류 미술계와 사회를 향한 강렬한 저항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 세계로 본인의 비람처럼 젊은 스타 작가로 떠올랐고, 세계 곳곳에서 개인전을 열면서 글로벌 미술계의 주목을 받는다. 미완중독으로 28세의 나이에 요절했지만 드로잉, 회화, 조각 등 3천여 점의 작품을 남기며 불꽃 같은 삶을 살다 간 그는 오늘날에도 자유와 저항 정신의 아이콘으로 사랑 받고 있다. 거리, 영웅, 예술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내세워 바스키아의 예술 세계 전반을 조명하는 이번 회고전은 국내 최대 규모로, 회화, 조각, 드로잉, 세라믹, 사진 등 1백50여 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온라인 사전 예약을 추천한다(www.lottemuseum.com). 글 **고성연**

## EXHIBITION



BRUNELLO CUCINELLI  
From here on, I would like to resume the journey towards Universal Humanism

브루넬로 쿠치넬리 청담 전문점 / 신세계백화점 본점, 강남점, 대구신세계점, 센텀시티점 /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무역센터점, 목동점, 판교점, 대구점, 부산점 갤러리아백화점 EAST / 롯데백화점 본점 에비뉴엘, 부산본점 / AK플라자 분당점

# MAGIC CIRCLE

착용하기도 쉽고, 멋내기에도 좋은 알고 가벼운 오픈 밴드 셋. (왼쪽부터) 프레스드 샹스 인피니 컬렉션 브레이슬릿 울걸, 무한대, 매드, 그리고 행운의 숫자 8을 의미하는 둥근 이차원 버클이 포인트인 밴드. 1천만원대, 문의 02-514-3721  
 티파니 타파니 하드웨어 볼 비아베스 브레이슬릿 1971년 출시한 볼 앤 체인 유닉스 브레이슬릿을 재해석했다. 18K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버전. 가격 미정. 문의 02-6250-8620 불가리 불가리 클래식 원형 디스크에 각기 다른 스톤을 장식했다. 로즈 골드에 마더오브펄, 수갈리아트를 세팅한 브레이슬릿. 2백만원대, 문의 02-2056-0170 포토그래피 최승혁 에디터 장미윤



# ODE to AUTUMN

오브제를 연상시키는 감각적인 케이스와 우아한 발색으로 전 세계적 사랑을 얻은 루즈 에르메스가 2020 F/W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됐다. 쌀쌀하고 건조한 공기, 이에 대비되는 포근하고 이국적인 실내, 칙칙 같은 밤과 여명의 빛에서 영감을 얻은 이번 컬렉션은 핑크 빛의 로즈 계열로, 새틴 또는 매트, 두 가지 텍스처로 나눠 선보인다. 유틸리티 차레로 루즈 에르메스 새틴 립스틱 로즈 포메트 32, 새틴 립스틱 로즈 옴브레 45, 매트 립스틱 로즈 뉴 54, 모두 3.5g 9만5천원. 문의 02-310-5174 에디터 이혜미

## INSIGHT

# ROSE, ROSE

극심한 일교차로 위축된 환경기 피부엔 남다른 뷰티 리추얼이 필요한 법. 수천 송이 장미에서 얻은 고농축 에센스를 한 병에 담았는데, 이 장미 성분은 늘어진 피부 장벽을 촘촘하게 재건해 노화의 흔적을 완화하고, 얼굴빛은 생기 넘치게 해준다. 소프트와 리치, 두 가지 타입으로 제안하며 영양 가득한 부드러운 감각적인 텍스처를 경험할 수 있다. 압슬뤼 소프트 리치 크림 60ml 39만5천원대, 문의 080-022-3332 에디터 이주이



# 가방, 헤리티지를 말하다

다들 하우스의 풍부한 유산을 기념하는 피스로 구성된 30 몽타뉴(Montaigne) 라인에 새로운 핸드백 모델이 추가된다는 소식. 다들 상상적 부티크가 위치한 거리에서 이름을 따온 '다들 생토노레(Dior St Honoré)' 백이 그 주인공으로, 곡선과 직선이 조화를 이룬, 우아하면서도 모던한 실루엣과 'CD' 로고 클래스프가 돋보인다. 블루, 블랙, 라테 컬러의 매끈한 북스 카프 레더 또는 실용적인 그레인 숄더 지퍼 버전으로 디테롭게 전개하며, 미디엄, 라지 사이즈로 만나볼 수 있다. 가격 미정. 문의 02-3480-0104 에디터 이혜미

# THE COAT

비빔 일상에 여유를 선사할, 편안함과 정교함을 갖춘 의상으로 가득한 로로피아나의 2020 F/W 컬렉션. 따뜻한 오리엔탈빛의 마리골드(Marigold) 색상을 필두로, 화사한 도수를 화사하게 밝힐 생동감 넘치는 컬러 사용이 돋보인다. 가볍고 포근한 베이비 더블 캐시미어 소재에 메리골드 컬러를 입힌 앤슨(Anson) 코트는 이번 시즌 가장 눈길을 끄는 키아우터. 벨트로 여하는 군더더기 없는 랩 스타일일지, 우아한 드림 슬더라인과 리멜 컬러 디테일이 멋스럽다. 측면의 포켓 디테일, 후면의 중앙 트임이 실용성과 활동성을 보장한다. 어디에나 꼭 걸어야 할 금세 고급스러운 시티 룩을 완성할 수 있을 듯. 1천2백42만원. 문의 02-546-0615 에디터 이혜미



# LANCÔME PARIS



## THE PRECIOUS REPAIRING DROP

퓨어 올레오 오일  
그랜드 로즈 추출물  
트리 세라마이드 인나노 캡슐

밤 사이 경험하는,  
고농축 한 방울의 피부 기적

NEW ABSOLUE REPAIR BI-AMPOULE  
NEW 압슬뤼 바이 앰플



빛바랜 듯 자연스러운 매디드 효과를 준 로퍼 1백4만5천원 토즈.



나미 가죽을 적용한 후크 이어링 60만원대 보타가 배네타.



감각적인 그린 컬러가 돋보이는 카프 스킨스물 리더 올림피아 백, 26X15cm, 2백39만원 버버리.



상징적인 로스키 장신과 GG 패턴을 버킷 백, 14X19cm, 2백27만원 구찌.



클래식 캐시미어 코트 8백10만원대 로로피아나.

# Selection

가을을 즐기는 따뜻하고 멋스러운 방법.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hwang in woo



스웨이드로 재단한 트로틀 슈티치 베이직 스니커즈 91만원 에르메네제임도 제나.



안면과 가죽으로 완성한 정갈 1백29만원 브리오니.



송아지 가죽의 질감에서 고급스러움이 물어 나는 브리프케이스 34.5X26.5cm, 2백80만원대 말프 로렌 파퐁 라벨.



AS18915에 영감을 이스트로트 아델 에디터 아우터



천 코로 된 브리오니 56만 원, 100% 코튼 52만 원 에르메네제임도 제나.



히스토리의 아메리칸 1921. 대각선으로 배치한 디스틀레이가 특징으로, 제곱하는 칼라버 4400으로 구동한다. 4천9백70만원 비세르 콘스탄틴.

일파카와 버진 울, 캐시미어와 실크 소재를 최상으로 조합한 카디건 3백27만원 브루넬로 쿠치넬리.



안방원스 울 스커트 97만원 사카이.



로이스 카프 스킨 핏시 부츠 80만원대 처치스.

로로피아나 02-546-0615 토즈 02-3438-6008 보타가 배네타 02-3438-7682 버버리 080-700-8800 구찌 1577-1921 에르메네제임도 제나 02-518-0285 말프 로렌 파퐁 라벨 02-3438-6235 브리오니 02-516-9686 비세르 콘스탄틴 02-3446-0088 사카이 02-541-7510 에르메스 02-542-6622 처치스 02-3218-5320 브루넬로 쿠치넬리 02-3448-2931

## Salvatore Ferragamo





2020 부산비엔날레 현장 스케치

# 갈대숲, 항구, 골목길을 거니는 예술 산책

'역년제'라는 뜻을 지닌 이탈리아어에서 따온 '비엔날레'. 흔히 2년마다 열리는 국제 미술전을 일컫는, 세계 각지에서 마주칠 수 있는 행사지만 코로나19라는 돌발 변수가 터진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해마다 건축, 미술전을 번갈아 펼치는 베니스비엔날레를 비롯해 대부분 연가나 취소가 결정했다. 우리나라 '최장' 역사를 품은 부산비엔날레는 '불확실성 속 해법 찾기'를 의치며 감행을 결단했지만, 방역이 삼엄했던 지난 9월 초 아쉽게도 온라인으로 개막했다. 그렇지만 다행히 '오프라인 관람'으로 전환한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오감'으로 즐길 수 있게 됐다. 문학을 토대로 음악과 시각예술을 엮은 이색적인 구성과 매혹적인 다국적 콘텐츠가 돋보이는 2020 부산비엔날레, '발품' 아깝지 않은 그 현장을 소개한다.

도시를 거니는 '산책'은 아마도 비엔날레가 선사하는 가장 살뜰한 매력 아닐까 싶다. 아예 생경한 지역의 도시도 그리 하겠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구석이 더 많은 도시도 그렇다. 당대 사회의 거울 역할을 하는 예술이라는 렌즈를 들여다보면 복잡다단한 도시의 면면을 새삼 느끼고, 새롭게 발견하는 희열도 알게 되지 않는가. 어디든 각자의 매력은 있었지만 부산은 예술 산책의 묘미를 따지자면 '장소의 미학'이 꽤 출중한 곳이다.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도시 디자인' 탐사를 한 김민수 교수가 자신의 저서에서 얘기했듯 부산이라는 도시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배경으로 복잡한 내력을 쌓아왔기에 '주름'이 겹겹이 새

겨져 있지만, 그 주름에 고단한 흔적만 묻어내는 게 아니라 신나는 놀이동산이나 멀티플렉스 영화관처럼 다양한 재미가 잔뜩 배어 있기 때문이다. '열장의 이야기와 다섯 편의 시'라는 주제를 내걸고 2020 부산비엔날레를 이끈 아홉 파브리시우스(Jacob Fabricius) 전시 감독은 이 도시가 지닌 다채롭고 경쾌한 매력을 잘 포착해낸 듯하다. 부산, 혹은 도시를 소재로 다국적 저자 11명이 쓴 탐정·공상과학 소설 등의 문학이 '빼다'가 되고(동명의 문집도 출간), 시각예술이 '장기와 뇌', 음악이 '조직과 근육' 역할을 맡도록 한 구성도 흥미롭지만, 자칫 산만해질 수 있는 구조의 다층적인 콘텐츠를 각각의 결과 잘 어우러지는 장소로 묶어 선보인 인품도 인상적이다. 소탈한 항구 전망을 품은 영도, 골목과 거리마다 시선이 녹아 있는 원도심 일대, 낙동강 하구의 갈대숲으로 유명한 을숙도의 부산현대미술관(MoCA), 이렇게 크게 세 곳이다. 간만에 접한 문학에 영감 받은 채 지도를 들고 유유자적 예술 산책을 하노라면 탐정 놀이나 보물찾기 하듯 도시를 즐겨보라는 전시 감독의 애정 어린 제안에 '원격'이나마 환한 미소로 화답하고 싶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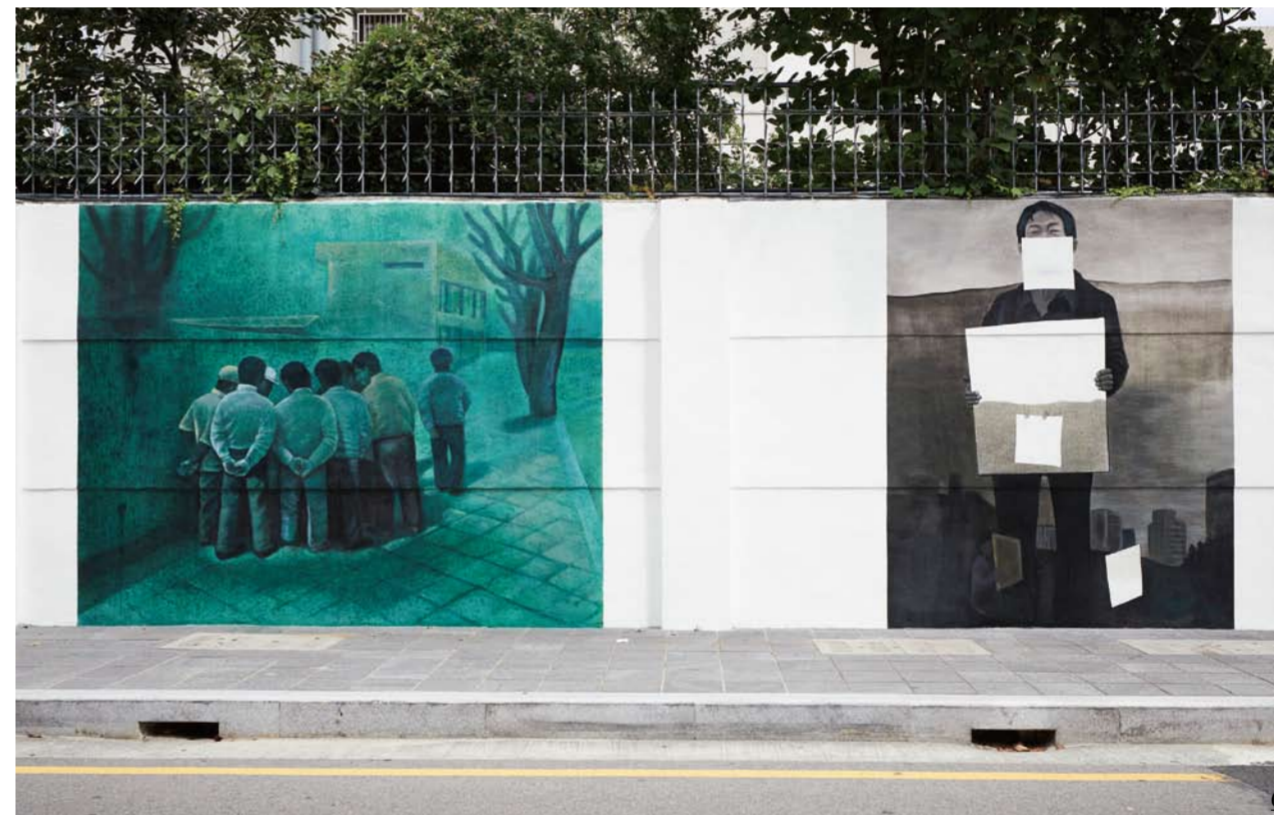
## #산책길 1\_영도

### 이야기 김연수 <물개여관>

"바다는 무언가를 계속 그리워하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이고, 실제의 세상을 만나는 것은 때때로 너무나 무섭고 위험한 일인가..." 부산 출신 김연수가 쓴 소설 <물개여관>

은 낡은 건물이 즐비한 영도 남항동 골목을 배경으로 한다. 필자는 영도에 처음 가봤는데, 부산과 영도를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인 영도다리를 건너면 고즈넉한 영도항의 모습이 소탈하게 펼쳐진다. 오른쪽 턱에 손을 켜 소녀의 얼굴이 그려진 창고 건물이 목격되던 전시장. 소설에 묘사된 배의 녹슨 철판을 때리는 강강이 망치질을 하는 아줌마와 기억 없는 출장길을 떠나는 선원들 대신 9명의 아티스트가 각자의 방식으로 작업한 설치 작품과 영상 작품으로 채워져 있다. 우선 입구에서 맞이하는 커다란 구조물은 이요나의 'En route home'이라는 작품으로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소재로 미로를 헤치며 나아가면 곳곳에 맥주 캔, 두루말이 휴지 같은 일상용품이 놓여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간헐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에 살짝 놀랄 수도 있는데, 방수포, 스티로폼 등 역시 부두에서 쉬이 볼 법한 물품으로 만든 권중주의 작품 '폭포다'. 가상과 실제의 경계에서 유통하는 자이를 연상시키는 김희천의 영상 작품 '탱크'를 감상하노라니 바다와 육지 사이에서 부단히 표류하는 삶을 사는 소설 주인공 '수레'가 설핏 연상되는 건 아마도 뱃고동이 나지막이 울릴 것만 같은 '공간의 힘일까, 아니면 텍스트의 힘일까'.

## #산책길 2\_원도심 일대



1 부산영도항에 자리한 2020 부산비엔날레 전시장에서 바라본 항구 풍경. 2 2020 부산비엔날레 공식 포스터 디자인. 3 영도항의 전시장으로 사용하는 창고. 김연수 <물개여관>의 한 장면이 배경으로 전시되고 있다. <물개여관>은 문학동네에서 장편소설로 출간될 예정이다. 4 영도 창고 전시장 내부의 전시 공간. 김희천의 영상 작품 '탱크'(2019) 등을 감상할 수 있다. 5 이요나, 'En route home'(2020), 스테인리스 스틸, 오브제, 가변 크기. 사진 제공 부산비엔날레 조직위. 6 노원희, '가리에서'(1980), 캔버스에 유채, 벽화 제작(2020), 노원희 미술의 사적(2015), 캔버스에 아크릴, 벽화 제작(2020). (주) 한국은행 부산본부 외벽 설치. 사진 제공 부산비엔날레 조직위. 7 람한, 'hint\_01'(2020), 디지털 페인팅, 라이트 매핑. (주) 한국은행 부산본부 물대리 설치. 8 김아영, '수리술 수증연구소에서'(2020), 비디오, 설치, 시음(177분), BNK 부산은행 아트시네마. 9 스테판 탈레무스, '무제 스핀'(2020), 부산현대미술관 설치. 판해영의 <냉장고에 해당하는 작품. 10 비바라 키스텐, '크로스오버'(2016/2020), HD 비디오, 무성 루미, 플렉시블라스 등, 부산현대미술관 지하 1층. 아라리 에스미스의 <산가 말하다>에 매칭되는 작품. \* 1, 2, 3, 4, 7, 8, 9, 10번 이미지 촬영 SYKO



7



8



10

건물은 원도심 산책의 화중점이라고 할 만하다. 콜롬비아 태생의 문필가 안드레스 솔라노의 단편 추리소설과 매칭되는 작품이 모여 있다. 일단 가는 길에 옛 한국은행 건물을 캔버스 삼아 설치한 핑크빛 토끼, 달팽이 등을 담은 작품부터 심상치 않다(같은 작가의 독특한 뒤편 디지털 페인팅 작품 시리즈). 거리에서의 묘한 시각적 즐거움은 아트시네마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살짝 충격(?)으로 바뀔 공간이 크다. 미지의 기원을 지닌 잘린 신체를 형상화한 나다니엘 벨로스의 작품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물론 미소 띠는 검은 머리 여인을 담은 람한의 작품도 있긴 하다). 가장 집중해서 감상해야 할 대상은 김아영 작가의 영상 시리즈다. 특히 17분 길이의 최신작 '수리술 수증연구소에서'는 예멘 난민 출신 배우가 등장하는 영상의 미학도 빼어난 데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연상케 하는 내용을 담은, SF 영화같은 작품.

## #산책길 3\_을숙도 부산현대미술관(MoCA)

### 이야기 판해영 <냉장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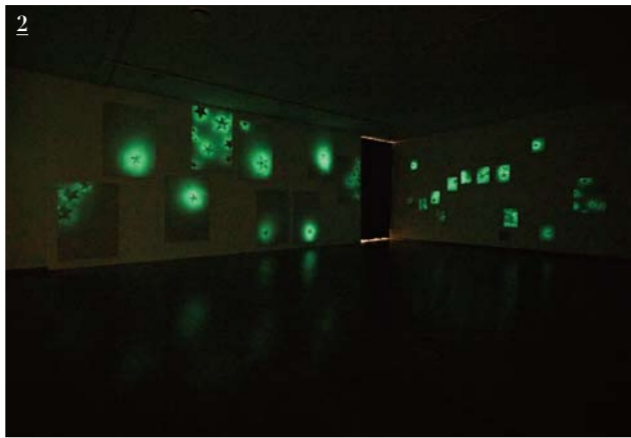
갈대의 물결이 아름다운 을숙도 생태공원에 자리 잡은 부산현대미술관은 출발한 지 몇 년 되지 않았지만 동시대 미술의 참예한 메시지를 담아내는 그릇 역할을 톡톡히 하는 공간이다. 외벽에 '수직정원'이라는 작품을 둘러 초록빛 옷차림을 한 미술관 건물은 이번 비엔날레를 맞이해 '자이언츠' 야구복을 입은 오리를 유리벽에 등장시켰다. 설치 작품 '무제 스핀'. 실내로 들어가면 공간을 압도하는 '문도 카메가' 입구부터 딱히 버티고 있다. 철창 감옥에



간헐 기계 인형들이 눈길을 절로 사로잡는다. 부조리한 세상을 풍자한 벨기에 작가 요스 드 그뤼터 & 해럴드 타이스의 설치 작품으로 지난해 베니스비엔날레에서 선보였다. 으스스한 결말을 선사하는 편혜영의 단편소설 <냉장고>에서 영감을 받은 작가 5인의 작품은 이렇듯 야외, 1층을 비롯해 지하 1층 공간에도 흩어져 있다.

### 이야기아말리에 스미스 <전기(電氣)가 말한다>

“꿈 부산이 잠에서 깨어나 저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것입니다... 당신은 인간이 도시의 발전을 이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곳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저, '전기'입니다...” 문필가이자 시각예술가이기도 한 아말리에 스미스의 단편은 거대한 도시가 돌아가게끔 에너지를 공급하는 전기가 꽤나 냉소적인 주인공으로 등장해 엄마(전자기), 아빠(태양광), 전남편(전화) 등과 대화를 나누는 극본 형식의 이야기다. 실소를 유발하는 대화에 '매칭되는' 작품군에는 8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빛과 색채, 기하학의 조화를 플렉시글라스 등의 재료 위에서 영상으로 펼쳐내는 바버라 카스텐의 '크로스오버',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을 그린 리우 외의 가상현실(VR) 에세이 작품 'Devil's Ivy', 장르의 경계를 넘나들며 인간의 양가성이나 권력 구조 등을 다뤄온 카마유 앙로의 회화와 설치 작품 등 여성 작가들의 빼어난 작품 세계가 눈에 띈다.



### 신 김혜순 '오션 뷰', '고니', '자갈치 하늘', '해운대 텍사스 퀸콩', '피난'

지난해 봄 캐나다 그리핀 문학상을 받은 김혜순은 2020 부산비엔날레에서 유일하게 시를 선보인 문필가다. 그녀의 시 다섯 편과 맥락을 같이 하는 작가군은 8명. 이 중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으로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는 비앙카 봉디는 2주간의 자가 격리를 감수하고 부산에 다녀갔다. 그렇게 탄생한 작품이 바다를 온통 하얀 소금으로 덮고 나무와 풀을 심은 쓸쓸한 방 안에 침대와 화장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 공간이다. 김혜순 시인의 시 '고니'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대기실'이라는 작품으로, 침대는 삶과

죽음을 상징한다고. 격리 기간 중 홀로 고독을 견디면서 작품 주제에 더 몰두할 수 있었다는 비앙카 봉디의 방을 지나면 구경아 작가의 작품 '7개의 별'이 설치된 공간이 나온다. 어둠 속에서 초록빛으로 반짝이지만 불이 켜져 방이 밝아지면 그저 존재감 없는 캔버스만 걸려 있다. 어두울수록 빛을 더 발하는 세상을 시적 조형 언어로 담아낸 이 작품은 익숙함과 새로움, 현실과 허구 등 경계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듯하다.

### #산책길 4 망미동 국제갤러리, 해운대 조현화랑 등 '장외' 공간

'예술 산책을 위해 일부러 부산을 찾았다면 비엔날레 기간에 선보이는 다른 전시들도 주목할 만하다. 국제갤러리 부산점에서는 현대 사진계 거장 칸디다 호퍼(Candida Höfer)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 부산에서는 처음 개인전을 가지는 칸디다 호퍼는 세계 각지에 있는 문화적 장소들을 선정해 '사람을 등장시키지 않은 채 내부를 담아내는 작품 세계로 잘 알려져 있다. 장소에 원래 설치돼 있는 인공 조명과 자연 광을 제외하면 인위적인 장비를 쓰거나 보정을 하지 않는 데, 그만큼 치밀하고 정교한 계산과 완성도 있는 기교가 뒷받침된다. 이번 전시는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함부르크의 문화 예술 명소인 엘프 필하모니 콘서트홀의 축척 모형을 찍은 작품을 비롯해 모스크바의 개러지 현대미술관, 리스본의 민족지학 뮤지엄(Ethnogra phisches Museum Lissabon) 등 70대 노장의 긴 창조 여정을 다양하게 아우른다. "부산에 가본 적이 없고 갤러리 공간도 직접 보지 못했다"면서 코로나19 여파로 방문하지 못한 아쉬움을 영상 편지로 전한 그녀가 거주하는 쾰른은 역동적인 항구도시로 부산을 닮은 구석이 있다. 해운대 달맞이언덕에 자리한 조현화랑에서는 회화와 조각의 경계를 넘나드는 정광호 작가의 개인전이 10년 만에 열리고 있다. 두 전시 모두 부산비엔날레가 막을 내리는 11월 8일까지 계속된다. 이 밖에 해운대의 또 다른 명소 고은사진미술관에서는 이명호 작가의 개인전 <드러나다>가 11월 25일까지 펼쳐진다. 글 <고성연>

1 올스튜디오에 자리한 부산비엔날레에 설치된 비앙카 봉디의 작품 '대기실'(2020). 작가가 부산을 직접 방문해 자가 격리를 거쳐서 김혜순 시인의 시 '고니'에서 영감을 받아 작업했다. Photo by SY Ko 2 역시 김혜순 시인의 시와 매칭되는 구경아의 설치 작품 '7개의 별'(2019). 캔버스에 발명 인偶, 기번 크기, 부산비엔날레 지하 1층 전시장. Courtesy of Koo Jeong A & STUDIO 3 국제갤러리 부산점에서 독일 현대미술의 거장 칸디다 호퍼 개인전 (Candida Höfer)가 열리고 있다. 오는 11월 8일까지.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4 칸디다 호퍼 전시장 모습. 칸디다 호퍼는 사람이 배경에 등장하지 않는 텅 빈 극장이나 도서관, 미술관, 콘서트홀 등 문화적 공공장소의 내부를 사진으로 담은 70대 중반의 거장이다.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5 부산 파피라스 호텔 인근 조현화랑 전시공간에 설치된 정광호 작가의 작품. 해운대구 달맞이언덕에 위치한 조현화랑 전시장에서 10년만의 개인전을 개최 중이다(오는 11월 8일까지). Photo by SY Ko



# supernatural

꽃과 나비, 새와 팬더, 그리고 코끼리가 모여 있는 햇살 좋은 가을.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유류터) 빈클리프 아펠 루 베틀클라이 비 트윈 더 핑거 링 비대칭적인 질감과 형태 속에서 공중을 비행하는 나비의 우아한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매종이 가장 사랑받는 태대에 생명을 불어넣은 링으로 옐로 골드와 화이트 골드, 가스며 다이아몬드를 믹스했다. 2천원원래, 문의 1668-1906

타피니 타피니 페이퍼 플라워 다이아몬드 & 아이리시 클라워 링 중앙으로 만든 꽃에 대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이 컬렉션은 만화한 꽃이 바람에 흩날리다 플라워링 핀으로 고정된 형태를 모티브로 했다. 플라워 타피니에 라운드 컷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와 쿠션 컷 이라미론을 사용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6250-9620

소매 에스파에글리 브로치 케냐의 예술가 에반스 영우구와 합작해 미지의 세계인 아프리카 대륙을 작품에 담았다. 아프리카 대륙에 관련된 풍요로운 영감과 해박한 지식을 독특한 색상으로 표현한 아프리카의 보물 컬렉션 중 하나인 동물 모티브를 형상화한 브로치 컬렉션. 에스파에글리, 그중에서도 꽃잎을 가득 안고 파타에 온 코끼리 모티브에는 화이트 골드에 사파이어, 핑크 오팔, 탄자이트와 루트말린을 사용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3479-1597

플기리 피오레 브레이슬릿 꽃을 뜻하는 이탈리아 피오레라 영감을 의미하는 피오레를 결합한 피오레리는 4개의 꽃잎을 지난 다이아몬드 주얼리 컬렉션. 1920년 대부터 플리워 모티브를 재창조해온 별가리의 창의성과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제작한 꽃잎은 실망이듯 섬세하게 움직인다.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버전의 M 시리즈 제품이다. 5천원원래, 문의 02-2056-0170

카르띠에 팬더 드 카르띠에 브레이슬릿 1941년에 첫선을 보인 0리 드팬드의 역사를 지켜온 팬 더 드 카르띠에 컬렉션은 아프리카 여행 중 먹이를 찾아 헤메는 팬더의 모습에 매료된 루이 카르띠에에 의해 탄생했다. 카르띠에의 팬더는 대로는 커리 스파 있게, 때로는 사랑스럽고 장난스럽게 표현된다. 이 브레이슬릿은 18K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와 에메랄드, 그리고 옻나무를 개설했으며 착용 시 태슬이 고급스럽게 흐르듯 움직인다. 1억원래, 문의 1566-7277

피아제 로즈 아아링 18K 핑크 골드에 5백 46개, 총 4.11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하게 피어난 장미의 모습을 담은 아아링. 다이아몬드의 눈부신 광채를 둘러싼 세 송이 장미가 우아하다. 4천원원래, 문의 02-3479-1802

부쉬엔 메이시 박스 팬던트 18K 옐로 골드로 만든 자연스럽게 깎인 나뭇가지와 그 위에 얹은 작은 새가 매우 정교하다. 다이아몬드, 옻나무, 그리고 블랙 사파이어를 매치했다. 2천원원래, 문의 02-772-3508 에디터 장유은

# structural thrills

(위부터 시계 방향) 로저드워 엔스칼리베 42 주얼리 스퀘어 케이스를 특징으로 하는 풀 스퀘어 케이스의 속을 고정하는 풀 스퀘어 케이스. 전 세계 88개 한정 모델이다. 마이클 로타와 켈드 심지 모양의 케이스를 장착한 RD506SQ 칼리버를 장착하였으며, 베젤에는 60개의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를 화려하게 새겼다. 2억6천9백만원, 문의 02-3449-5914

볼가타 오토 피니쉬로 스퀘어 케이스를 특징으로 하는 듀얼러 2.35mm인 초박형 모델로 샌드블라스트 처리된 18K 로즈 골드 케이스를 통해 칼리버 BVL 1289K 구조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약 65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며 수심 30m 방수 기능을 갖는다. 3천9백만원, 문의 02-2066-0170

카르타에 피사드 카르타에 워치 복잡 정교한 스텐드론 무브먼트 위 아메리칸 스타일 안티스피드와 다이아몬드 모양의 블루 스틸 핸즈가 역동적이고 현대적인 이미지를 준다. 약 72시간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며, 퀵스왑 시스템으로 브레이슬링과 스트랩을 손쉽게 교체할 수 있다. 칼리버는 오토매틱 워킹 무브먼트 9624 MC를 사용했으며, 투명 케이스 백으로 그 시대를 한껏 드러낸다. 가격 미정, 문의 1566-7277

볼가타 발라드 스퀘어 케이스를 특징으로 하는 풀 스퀘어 케이스로 장식된 디자인으로 하이엔드의 품격을 드러낸다. 트리를 베젤로 풀어놓은 8개의 파워 리저브를 지원 하는 칼리버 13R0 무브먼트를 탑재했으며, 최소한 한 플레이트와 브리저를 움직일 데 없이 이루어진 무브먼트를 감상할 수 있다. 1억 1천9백만원, 문의 02-3213-2261

피어제 엔카리도 투르비옹 쿵방 워치 지름 46.5mm의 골드 케이스에 담긴 숫자 8을 형상화한 두 케이스와 피어제를 상징하는 0.13 P로 장식한 오픈 센터 마이클로 로타가 조형미를 한껏 강조하며, 울트라-신 기계식 셀프윈딩 투르비옹 무브먼트 1270P 칼리버를 장착했다. 2억만원, 문의 02-3479-1802

파넬라이 루마노 투르비옹 GMT 장인이 돋보이는 샌드블라스트 마감을 한 멋스러운 티타늄 케이스와 상징적인 크라운 거드의 대담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모델. 스몰 세컨드 다이얼과 24시간 카운터,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 창으로 컴플리케이션을 확실히 채웠다. 티타늄 클래스프와 함께 블랙 벨크로 스트랩을 추가로 제공한다. 1억7천만원, 문의 02-3479-1877

에기 르클레르 마스터 울트라 신 스퀘어 케이스를 특징으로 하는 골드와 블랙의 조화로운 조합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클래식한 이미지와 현대적인 디자인이 조화를 이룬다. 1억 2천만원, 문의 02-3998-3398



독창적인 설계와 대담한 디자인으로 빛어낸 기계식 메커니즘의 미학, 스퀘어 케이스 위치가 전하는 황홀한 진을.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 gentleman's closet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를 아우르는 감도 높은 컬렉션에 완벽하게 가까운 실루엣에서 우리나라는 자연스러운 품위를 담았다. 장인 정신에 대한 경의와 뚜렷한 가치를 녹여낸 신사의 아우터. photographed by kang pilmo



## 안락하고 멋스러운 공간에서 향유하는 장인 정신

아메리칸 클래식 정수로 여겨지는 랄프 로렌이 정의하는 정통 고급 정장이란 어떤 모습일까? 최고급 수트 라인을 선보이는 랄프 로렌 퍼플 라벨은 영국 세빌 로의 고급 비스포크 정장을 표방한다. “수트의 핏과 구조가 장인 정신의 전통을 온전히 반영하면서도 유연하며, 자연스럽고 편안하길 원했습니다. 퍼플 라벨은 아름다운 옷 그 이상이고, 소중하게 여겨온 정통 테일러링 컬렉션을 다시 만들고 싶었습니다.” 퍼플 라벨은 미스터 로렌의 맞춤 테일러링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에서 시작해 장인 정신으로 탄생한 뛰어난 품질을 최고의 가치이자 지향점으로 삼는다. 원사에서 재단, 재봉 그리고 완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탈리아 현지에서 핸드메이드 방식으로 제작한다. 고전적인 양복 제조업을 그대로 재현해 완성한 정교한 실루엣에서 그 진가를 조용하고 강하게 드러낸다.

이번 F/W 시즌에는 탄생 25주년을 기념해 아카이브를 되짚어본다. 많은 사랑을 받은 베스트셀러만 엄선해 동시대적 시각을 반영, 강조된 어깨 라인이나 허리 라인에 꼭 맞는 슬림 실루엣 등 다양한 디테일을 적용해 클래식 텍시도와 수트, 이브닝 웨어로 큐레이션한다. 이렇듯 심세하고 우아한 매력에 느껴지는 랄프 로렌 퍼플 라벨 컬렉션을 이제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에서 만날 수 있다. 4층에 위치한 스토어는 뉴욕 랄프 로렌 맨즈 스토어 867 맨션 특유의 모던 엔틱풍 요소를 반영해 니켈 트림과 마호가니 원목 벽으로 랄프 로렌만의 아이덴티티를 완벽하게 표현했다. 가을에서 겨울까지 계절을 아우르는 그레이 러스 & 생 제르망 프라폴 컬렉션 웨어를 비롯해 정통 수트 라인인 이브닝 라인, 스포츠 웨어와 럭셔리한 가죽 가방, 슈즈, 워치 & 주얼리 라인인 홈 컬렉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을 구비했다. 품격 있는 공간과 감각적인 제품으로 재현한 젊음과 여유로운 랄프 로렌식 라이프스타일과 뛰어난 품질로 귀결되는 세련되고 훌륭한 취향을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다. 문의 02-3438-6235 에디션 001



1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4층에 새롭게 재탄생한 랄프 로렌 퍼플 라벨 스토어. 2 랄프 로렌의 상징적인 엠블럼 모니 로고를 다이얼에 담아 선보이는 워치 컬렉션. 약 38시간의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춘 무브먼트 RL200을 장착했다. 3 산뜻한 최상의 소재와 장인 정신이 빛어낸 의류에서 가방과 슈즈, 다양한 레더 굿즈까지 다양하게 선보이는 공간. 4 프랑스 전통을 연상시키는 부드러운 컬러 팔레트와 고급스럽고 편안한 캐시미어 소재를 적용한 생제르망 컬렉션. 5 고공스러운 원목 원판과 멋스러운 메탈 케이스 피스가 어우러진 체스 세트. 6 양귀족 스타일로 재탄생한 클래식 로퍼. 7 빛바랜 듯한 가죽의 질감과 고급스러움이 자연스럽게 물어 있는 얼은 브라운 컬러 브리프케이스.



**TOD'S**

매끈한 레더 트림으로 포인트를 준 스웨이드 카프 스킨 소재 워렌트 백 2백42만원, 타일라스 고마노 트리아 펄 슈즈 77만5천원 모두 **토즈**, 문의 02-3438-6008



**GIVENCHY**

여러 색상의 앙가주를 촘촘히 엮어 패튼을 만든 감각적인 디자인의 안티고나 소프트 맥시 백 8백29만원 **지프시**, 문의 02-546-2790

# new mates

고유의 취향을 지닌 남성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할 다채로운 매력의 백 & 슈즈.  
photographed by **choi seung hyuk**

아시아프 조소희



**HERMÈS**

모던한 블랙 송아지가죽 앵클부츠 가격 미정, 7방 앞 · 뒷편을 열어 몸에 밀착되는 크로스 보디 스타일로 멜 수 있는 에르메스 세컨드 사이트 백 가격 미정 모두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BOTTEGA VENETA**

인트레치아토 7번으로 장식성을 살린 어두운 그린 계열의 나파 레더 BV 클래식스프 클라치 4백72만원 **보테가 베네타**, 문의 02-3438-7682 에디터 **야메이**



1. Sponsored by Alexander McQueen

1



# my story

동시대 여성이 원하는 아름다움과 알렉산더 맥퀸 하우스의 아이덴티티를 접목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이상적인 모습의 '톨 스토리(Tall Story)' 백.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2020 프리스프링 시즌 처음 공개되며 알렉산더 맥퀸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오른 스토리 백. 주얼리에서 영감을 얻은 모던한 메탈 핸들 덕분에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해, 실용적이고 유니크한 가방으로 사랑받고 있다. 그리고 2020 F/W 시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사라 버튼(Sarah Burton)은 하우스의 강렬한 디자인 코드와 영국식 우아함을 모두 갖춘 톨 스토리 백을 선보였다. '스토리 패밀리' 중 단연 돋보이는 존재감을 지닌 이 빅 사이즈 백은 조각적이고 견고한 실루엣, 대담한 컬러 매치가 매력적. 역시 시그니처인 메탈 핸들 장식을 더했는데, 유려한 곡선형으로 가방을 들었을 때 편안한 것은 물론 디자인 포인트 역할을 톡톡히 한다. 가죽 스트랩을 사용해 솔더백으로도 연출 가능하며, 노트북까지 수납 가능한 넉넉한 크기를 자랑해 데일리 백으로 제격이다. 전면의 지퍼 포켓에는 휴대폰, 신용카드 등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보관할 수 있어 편리성까지 갖췄다. 브랜드 인장을 새긴 가죽 태그 등 고급스러운 디테일 또한 놓치지 말고 눈여겨볼 부분. 이번 시즌 톨 스토리 백은 레드 안감을 배색하고 오버사이즈 퀵링 디테일을 입힌 블랙 송아지가죽, 크로커다일 엠보싱 송아지가죽 모델을 비롯해 RTW 컬렉션 룩에서 착안한 핸드메이드 패치워크 버전까지 다채로운 디자인으로 전개한다. 문의 02-6905-3472 에디터 **야메이**

1 레드 컬러 가죽 트림이 돋보이는 퀵링 장식 톨 스토리 백 4백45만원, 2 톨 스토리 백을 착용한 브랜드 앰배서더 진지현.

# the town coat

미리 만나는 올겨울 당신의 코트. photographed by jung ji eun



베이지 트렌치코트 4백49만원, 체크 티플렉스 드레스 3백39만원 모두 버버리.



라벤더 컬러 퍼 코트 7백59만원  
블루마린. 블랙 & 그레이 셔츠  
3백만원대, 스카트 1백40만원대,  
실버 펄프스 가터 미장, 그린 타이츠  
60만원대 모두 프라다.



블랙 코트 가격 미정,  
터틀넥 드레스 가격 미정,  
화이트 부츠 2백39만원  
모두 보타가 베네다.



브라운 퍼 장식 코트  
1천2백만원 **마스미라**, 화이트  
러플 장식의 롱 드레스, 골드 링  
모두 가격 미정 **자참시**, 화이트  
부츠 가격 미정 **포츠 1961**.



블랙 코트 6백51만원,  
스팽글 롱 2백65만원,  
플라워 프린트 스커트 4백39만원  
모두 발렌티노. 블랙 레더 펌프스  
1백87만원 발렌티노 가리버니.

그레이 해링본 코트 3백37만원,  
블랙 리본 셔츠 가격 미정  
모두 **엘포리오 아르바니**. 플라워  
프린트 재킷, 팬츠 모두 가격  
미정 **드리스 반 노른**. 블랙 부츠  
2백26만원 발렌티노 가리버니.



그레이 해링본 코트 3백37만원,  
블랙 리본 셔츠 가격 미정  
모두 **엘포리오 아르바니**. 플라워  
프린트 재킷, 팬츠 모두 가격  
미정 **드리스 반 노른**. 블랙 부츠  
2백26만원 발렌티노 가리버니.



블랙 주얼 프린지 코트 가격 미정  
 프라다, 블랙 & 화이트 니트 드레스  
 가격 미정 포츠 1961, 파이톤 부츠  
 2백12만원 지미수, 아이링  
 가격 미정 옐포리오 아르마니.



화이트 트윈드 코트,  
 짐프 수트, 주얼 벨트,  
 네크리스 모두 가격 미정 샤넬.

헤어 김우준  
 메이크업 이영  
 모델 정소현(Aile Company)  
 스타일리스트 재한석

샤넬 080-200-2700, chanel.com  
 보테가 베네타 02-3438-7882  
 옐포리오 아르마니 02-540-1115  
 발렌티노 02-2051-4652  
 발렌티노 가문버니 02-2051-4652  
 프라다 02-3218-5331  
 포츠 1961 Ports1961.com  
 지미수 02-3438-6107  
 막스미라 02-511-3935  
 지형시 02-546-2790  
 드리스 반 노튼 1644-4490  
 볼루미엔 02-6905-3447  
 버버리 080-700-8800

# Be. positive

자금은 행복한 패션을 즐겨야 할 시간.  
photographed by choi seung hyuk

(우부터) 착용하면 보글보글 핑을 한 헤어스타일이 완성되는 올 보닛 가격 미정, 화이트 색상에 펄프스를 신은 듯한 디자인의 미드 힐 부츠 1백88만원 모두 **구찌**, 아비타이트 소재의 뉴 웨이브 생로 램 181 루투 신발라스 52만원 **생 로랑 by 안토니 바게트로**, 도 시와 리조트 스타일을 결합한 칼라피오 이 스키 컬렉션 카프 스 킨 피카부 아이코닉 미디엄 백 6백만원 **렌디**, 태슬로 장식한 사 피아노 소재 마이크로 미니 백 네크라스 1백30만원 **프라다**, 사람 얼굴 알라스트 10 고르스 고모 데이 에코 백 48만원 **10 고르스 고모**, 지퍼 모티브의 마이크로 짐 볼러 아이링 50만원 **모스카노**, 실크와인 반도 알 수 있는 No.5 향수병을 모티브로 한 이브닝 백 가격 미정 **샤넬**, 오즈의 마법사 한정판 노트 카우어틀리 라이온 옐로 라지 사이즈 3만9천원 **볼스킨**, 견고하고 입체적인 디자인의 페이퍼 카프 스킨 곡선 클러치 백, 내부는 니파 가죽으로 마무리했다. 2백56만원 **보테가 베네타**, 에디터 **장미윤**

**구찌** 02-3452-1921 **생 로랑 by 안토니 바게트로** 02-549-5741 **렌디** 02-514-0652 **프라다** 02-3218-5331 **10 고르스 고모** 02-3018-1010 **모스카노** 02-3488-1340 **샤넬** 080-200-2700, chanel.com **볼스킨** 02-554-0911 **보테가 베네타** 02-3438-7682



이시키텔 조소치

(우부터 시계 방향으로) **겔랑 오트 앙테리얼 슬리핑 세럼** 오기트를 비롯한 식물 추출물을 담은 미세한 마이크로 에멀션 포몰라가 피부 깊숙이 침투해 수면 환경으로 인한 노화의 징후를 완화하고, 피부 탄력을 강화한다. 매일 저녁, 크림 사용 전 단계에서 손가락 끝으로 펴 바르거나, 오기트 임팩터나 L-올라를 사용해 마사지를 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30ml 70만원, 문의 080-343-9500

**에스티 로더 아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실크로나이트 멀티 리카버리 콤플렉스** 독자적인 기술로 더욱 진화한 크로노복스™ 파워 시그널 테라놀로지의 효모 추출물, 펩타이드, 식물 유래 성분인 강력한 에나자를 신사해, 피부 본연의 힘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탄력, 모공, 피로감이 종합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느낄 수 있다. 50ml 15만7천원, 문의 02-6971-3212

**리프라이 플라티늄 레퍼 나이트 엘릭서** 클리닉 리프라이 성분과 니한스 박사의 연구를 바탕으로 탄생한 '플루리 콤플렉스' 함유해 탁월한 피부 정화, 진정, 영양 공급 효과를 발휘한다. 내장된 스폰티드 에멀리피케이션을 사용해 포물러 한 방울을 손바닥 위에 떨어뜨린 뒤 눈가를 제외한 얼굴 전체에 펴 바르고 크림으로 마무리한다. 20ml 1백325천원, 문의 02-511-6626

**자헬시 르 스와 노와 크림** 자헬시 연구소에서 추출한 프랑수아 바야탈 알가해조류 성분을 담은 딥 블러 클러의 탄력 케어 크림. 피부에 닿는 즉시 투명하게 변하는 가볍고 실크한 포몰러로, 이전 버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산뜻한 감각적 텍스처가 특징이다. 고농축 영양 성분과 수분을 공급해 피부의 균형을 조정하고 노화의 흔적을 감소시킨다. 50ml 49만8천원, 문의 080-801-9500

**샤넬 르 리프트 크림 드 뒤** 수면 시간에 이루어지는 피부 재생과 회복에 포카스를 맞춤 제품. 친규한 성분 나뭇잎 해방 유래 활성 성분을 결합한 뉴리프트 나이트 콤플렉스가 하루 종일 자전 피부를 진정시키고, 활력을 부여한다. 그뿐 아니라 뛰어난 안티에이징 효능으로 잘 알려진 알팔파 추출물을 더해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콜라겐 합성을 촉진한다. 50ml 21만8천원, 문의 080-332-2700, chanel.com

**랑콤 흡수력 바이 엠** 오일과 에센스, 두 가지 층으로 이루어진 오바나이트 리페어링 엠. L-노캡슐 형태의 세 가지 세라마이드 복합체, 랑콤 장미 추출물, 고농축 퓨어 올레오 오일을 담아 충분한 영양과 보습을 제공한다. 오일과 에센스 층이 잘 섞이도록 충분히 흔들고 스폰티드를 사용해 서너 방울을 손끝에 떨어뜨린 뒤, 체온으로 녹인 포몰러를 이마, 볼, 목에 가볍게 마사지를 하면 된다. 20ml 20만원, 문의 080-022-3332 **에디터 이혜미**



# overnight miracle

피부 세포가 활발히 재생하는 밤 단 한 번의 터치로 궁극의 스킨케어를 경험할 수 있는 프리미엄 나이트 케어 제품 6,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이시키텔 조소치



# editor's Pick

환절기, 힘을 잃은 피부를 위한 특급 스킨케어,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연속 유행어 시계 방향으로 **타피르 아이클리어스 디퓨저 #베이** 강하게 발효하다 시간 이 지나면 점점 약해지는 특유의 단점 때문에 디퓨저 타입을 선호하지 않지만, 이 제품은 확실히 다르다. 저온 발효 시스템으로 일정 시간 꾸준하고 고르게 힘을 발휘하는데, 모세관 혈관 제품을 투입했을 때보다 진피와 카운터 요이 어우러진 베이 향이 은은하게 방 안 가득 채워진다. 감각적인 디자인은 안부머 오브제르도 매력 만점 분홍 + 디퓨저 오일 75ml 24만원. 문의 02-3479-6049 *\_by 에디터 이주이*

**리노와이즈 모이스트 업 크림 클렌저** 건조하고 민감해진 피부엔 순하고 촉촉한 클렌징이 해답. 자극이 적은 약산성 타입에도 예민한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저분자 히알루론산과 세라마이드 성분도 보습막을 형성해 세안 후에도 땅김 없이 촉촉하다. 120ml 1만8천원. 문의 02-3677-9703 *\_by 에디터 이주이*

**리퀴티드 트라피지션 샴푸** 지성 두피 & 건조 모발이든 까다로운 조건을 지닌 에디터에게 높은 만족감을 안겨준 브랜드의 베스트셀러. 클렌징 능력이 뛰어난 동시에 충분한 영양과 수분을 채워줘 어느 것 하나 아쉬운 부분이 없다. 두피 진정, 토닝, 영양 공급에 탁월한 식물성 성분도 고농축해 담았는데, 가뭄의 밀도부터 차원이 다른 느낌. 200ml 2만8천원. 문의 1899-4802 *\_by 에디터 이혜미*

**나스 에어메이 림 컬러 #코어아이스** 애플리케이션으로 얼굴 유산에 특 하고 한번만 문히고,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입술 전체에 넓게 바른 뒤 보습보습 파우더로만 마무리를 얻을 수 있다. 바를 때는 크리미한데 곧 거침 가볍고 스프링이 특징. 특히 림 컬러는 지금 같은 날씨에 딱 좋다. 7.5ml 9천9천원. 문의 02-6905-3747 *\_by 에디터 장미은*

**에메 알티 스킨 유스 크림** 에디터는 아침에 크림을 듬뿍 바르도, 오후가 되면 속피부 땅기는 완벽한 건성 피부의 소유자. 2시간의 연구 끝에 출시한 이 100% 유스 유스 메도 크림은 고농축 소포트 발 텍스처 덕분에 바른 순간 스며들었다. 오후 5시, 이즈도 피부에 7분 좋은 유분이 남아 있다. 그 이유로 #샴푸구원크림이다. 50ml 35천원. 문의 1544-5114 *\_by 에디터 장미은*

**루시앙 이모르텔 프레스 나이트 마스크 크림** 강력한 항산화 효능으로 잘 알려진 이모르텔에서 추출한 에센스를 듬뿍 담았다. 산뜻하게 흡수되는 젤 타입 크림이 피부부를 매끄럽게 가꾸주고, 인공적이 아닌 생화 그대문의 향이 느껴져 사용하는 시간까지 행복하게 만든다. 듬뿍 바른 후 톡톡 자고 일어나면 맑은 안색 그 자체 50ml 8만5천원. 문의 02-2054-0500 *\_by 에디터 이주이*

**빈클라프 아젤 글락시움 윤화이트 매슬리 EDP** 하이 주얼리 메종의 챔(charm)을 다한 모던한 올 블랙 패키지가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성숙한 패셔너의 향을 베이스로, 톤 노트에 핑크 페퍼론, 베르가모트, 미들 노트에 불가리아 로즈, 아이리스를 결합했는데, 덕분에 우아한 향조가 강하게 느껴지지 않는 데다 매우 부드럽고 우아한 분위기를 풍긴다. 남녀 모두 사계절 사용해도 좋은 민트 은은한 증상적 향수. 75ml 18만원. 문의 080-800-8809 *\_by 에디터 이혜미*

**AHC 프리미엄 EX 하이dra B5 바이옴 캡슐 컨센트레이트** 가을이 되면 아무리 영양 성분 많은 크림을 듬뿍 발라도 어딘가 부족한 느낌이 든다. 이때 필요한 건 영양 가득한 앰플 한 병. 양산한 107지 프리바이오틱스가 무너진 수분 장벽을 재건하고 피부를 유연하게 가꾸준다. 잔피까지 도달하는 마이크로 리포솜 기술 덕분에 진피 피부 깊숙한 곳부터 탄탄하게 차오르는 느낌이다. 30ml 6만2천원. 문의 080-332-0855 *\_by 에디터 이주이*

**블리 1803 오 트라플 향수 #유드메**는 들, 미들, 베이스가 분리되지 않고 세 가지 노트를 하나로 결합, 유자류는 특별한 워터 베이스 향수. 뿌리는 즉시 고유한 향을 온전히 느낄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해간다. 사프란과 로즈, 그리고 영 버향이 어우러진 애초적으로 고급감 있는 플로럴 향. 75ml 23만원. 문의 1544-5114 *\_by 에디터 장미은*

**올레안기어나 뷰티 페이션 크림 투 파우더 매트 림 펜 #640** 이봄에서 연상할 수 있듯 크림처럼 부드럽게 발려 파우더처럼 가볍게 밀착되는 타입. 토탈함 없이 또렷하고 산뜻한 컬러가 그대로 발색되는데, 매트 타입임에도 힘이 건조해지지 않는 이유는 함유된 무화과 추출물과 올리브 오일 덕분에 끈적임 없이 편안한 입술 선 연출에도 제격이다. 2g 4만5천원. 문의 080-564-7700 *\_by 에디터 이주이*

**동원비 진 파운데이션 섀크 #21호 은은한 바닐라** 프리미엄 인티에이징 라인의 '진' 크림 섀크를 구성하는 홍삼 성분 '실크진 스킨'과 황금 누에고치에서 추출한 '골드 섀크 단백질'을 함유했다. 자색 빛은 사조까지 미미하게 하고 있어 피부 톤이 착해져거나 피부결이 산뜻하게 느껴지는 느낌이 들었다. 물론 카바릭과 지속력 또한 만족스럽다. 30ml 6만원. 문의 080-710-2304 *\_by 에디터 이혜미*

**글레드루 보네 2020 홀리데이 에디션 더 세럼** 이봄과 유령 알라스트라에 따라 이 페트들과와 함께해 바림의 후수 콘센트의 황산성 피부 자극을 일으키는 폴리머 에디션. 일곱 가지 아이싱 크림과 함께 사용하게 이 제품은 세안 후 가장 먼저 사용하는 파스트 세럼으로,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만들고 은은한 광채를 부여한다. 투명하고 묽은 포뮬러가 산뜻하게 스며들어 피부 속까지 수분을 채워주는 듯한 기분. 50ml 30만2천원. 문의 080-564-7700 *\_by 에디터 이혜미*

**클라랑스 엑스트라 피앙 넥&데콜레 크림** 클라랑스의 베스트셀러 중 하나로 피부와 윤광까지 업그레이드한 7세대 크림이다. 저분자글루코 주름과 데콜레의 목결이 주름이 콜라겐인 에디터는 내년 여름 네크라인 같이 피부 탄탄도에 도전하기 위해 지난 주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 먼저, 풍부한 크림 텍스처와 부드러운 케일라이 향은 함께 75ml 13만원. 문의 080-542-9052 *\_by 에디터 장미은*



## JEWEL & WATCH



**불가리 세르펜티 컬렉션** 세르펜티 주얼리는 작고 얇아 도화적이고 현대적인 느낌을 준다. 화이트 골드 또는 로즈 골드 소재의 네크리스, 브레이슬릿, 링 등 다양한 제품으로 만날 수 있는데, 캐주얼과 포멀 룩 등 어느 스타일이나 잘 어울린다. 세르펜티 컬렉션은 벨이 지난 풍요로운 삶과 지혜로운, 영원함을 상징해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 행운의 주얼리가 되어줄 것이다. 문의 02-2066-0170

**오메가 씨미스터 다이버 300M 벡트 에디션** 해양 탐험 및 보호에 노력을 기울이는 비영리 연구 재단 넥톤을 후원하기 위해 케이스 지름 42mm의 다이버 300M을 출시했다. 블랙 세라믹 다이얼에 바다를 상징하는 물결 패턴을 새기고, 베젤에는 레이저 가공 처리한 다이빙 스케일을 장착했다. 블랙 러버 스트랩 모델과 스테인리스 스틸 브레이슬릿, 총 2가지 모델로 구성했다. 문의 02-511-5797

**타피니 타피니 T 플 다이아몬드 파베 펜던트**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한 타피니 T1 컬렉션의 플 다이아몬드 파베 펜던트를 새롭게 선보인다. 라인을 따라 다이아몬드를 정교하게 세팅한 것이 특징이며, 로즈 골드, 옐로 골드, 화이트 골드까지 총 3가지 버전으로 만날 수 있다. 옷차림이 바뀌어지는 계절에 맞춰 포인트로 매치하기 좋다. 문의 02-6250-8620

**보테가 베네타 골드 핸드백** 브랜드의 상징적 요소인 인트레치아토 기법을 활용해 보다 편안하고 실용적인 골드 핸드백, 길이 조절 가능한 스트랩에 동전 모양 메탈 디테일을 더해 포인트를 주었다. 패디드 나파 가죽 버전은 키위, 포라지, 네일 폴리시, 블랙 등 4가지 색상으로 선보이며 알한 나파 가죽 버전은 초크 컬러를 추가해 총 5가지 색상으로 출시했다. 문의 02-3438-6008

**브루넬로 쿠차렐리 니트 스커트** 클래식한 니트웨어 스타에서 영감을 받은 섬세한 자카드 디자인으로 얇지만 따뜻하고 포근하다. 초경량 밀단과 니트 소재로 이루어져 착용감이 편하며 일상에서 매일 착용하기 좋다. 청담 플라그십 스토어를 비롯해 여러 입점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448-2931

**파비어나 필리피 2020 F/W 컬렉션** 그레이 하프 코트는 보일드 울 원단에 부클레와 마이크로 시퀀을 수놓아 펠트 느낌을 주며 알한 코트보다 더 따스하다. 함께 매치한 그레이 스커트는 펠 소재에 같은 장식으로 통일감을 줬다. 점점 쌀쌀해지는 계절을 맞아 세련된 스타일링에 도전해보자. 문의 02-6905-3626

**토즈 T 타임리스 백** 원통 모양을 하고 있는 T 타임리스 백은 탈착 가능한 슬더 스트랩으로 토탈 백, 클러치, 슬더백 등 자유자재로 스타일링 가능하다. 가을을 맞아 더해진 스텝 스튜디오 백, 선 선택된 가을 날씨와 잘 어울리는 캐주얼 컬러 소재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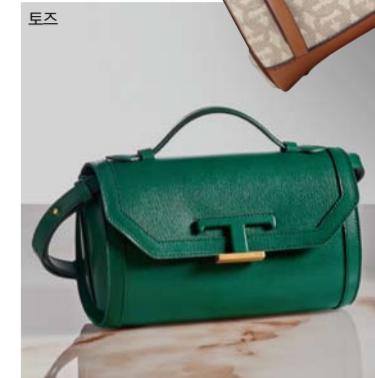
죽으로 이루어진 T 타임리스 로고와 아연도금으로 예스러운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잠금장치 포인트. 영사기 죽으로 제작된 T 타임리스 백은 화이트, 블랙, 딥 그린, 버건디 컬러로 구성했다. 문의 02-3438-6008

**몽클레르 X 리오와 리플렉션** 캐빈 두 브랜드가 지난 공학적 전문성과 기술적으로 앞선 소재를 결합해 탄생한 리미티드 에디션 여행 가방. 기존 리오와의 알루미늄 외관을 미러 소재로 대체해 화려하다. 앞면에 메탈 소재 몽클레르 배지를 달아 두 브랜드의 관계성을 표현했다. 가방 내부에는 이번 에디션에서만 볼 수 있는 살바 페링 큐브 세트가 들어 있는데, 나일론 패딩으로 재봉해 여행 중에도 손쉽게 짐을 정리할 수 있다. 문의 02-514-6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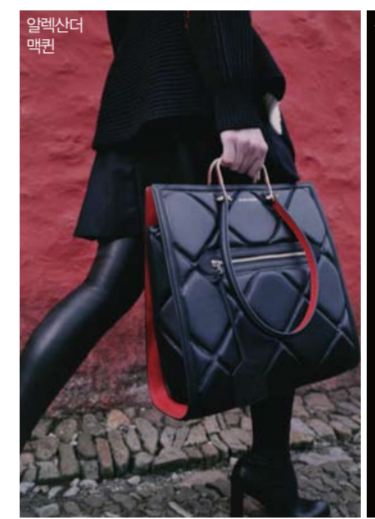
**일렉신더 맥퀸 톨 스토리 백** 브랜드 인장이 박힌 가죽 태그를 달고, 걸갈과 안감 색이 강하게 대비를 이루는 톨 스토리 백은 존재감으로도 강렬하다. 크기가 큰 노트북을 비롯한 각종 소품이 들어갈 정도로 넉넉한 내부가 장점. 레드 안감을 배색한 블랙 버전에는 오퍼시온 퀴팅 디테일을 참작했다. 이외에 크로코 스텝트 블랙 버전, RTW 컬렉션에서 착안한 핸드메이드 패치워크 버전도 있다. 문의 02-6905-3472

**살바토레 페라기오 스텝 스튜디오 백** 가을을 맞아 더해진 컬러감과 실용적인 내구성으로 토탈 스튜디오 백, 선 선택된 가을 날씨와 잘 어울리는 캐주얼 컬러 소재까지

에 갇힌 패턴 면 소재를 조합해 빈티지한 매력을 갖췄다. 문의 02-3430-7854



## FASHION



# SHOWROOM

**샤넬 루주 알튀르 리오** 강렬한 컬러와 새틴처럼 매끄럽고 반짝이는 광채, 입술에 발랐을 때 느껴지는 섬세하고 부드러운 텍스처와 오랜 지속력이 돋보이는 리오 티 립 컬러 루주 알튀르 리오를 새롭게 출시했다. 유광 블랙 그라데이션 레커 케이스에 담긴 20가지 컬러는 12시간 동안 컬러와 수분감이 유지된다. 문의 080-332-2700

**랑콤 압슬루비 바이 앰플** 고농축 영양 성분이 담긴 압슬루비 바이 앰플은 오일과 에센스가 각각 층을 이루는 오바비-티 리페어링 앰플이다. 에센스에는 37가지 세라마이드 복합체와 진피에서 추출한 27가지 활성 인자 성분, 그리고 고농축 유래 오일이 들어 있다. 피부에 깊은 보습과 영양을 제공하며 탄력을 향상시키고 광채 개선에 도움을 준다. 문의 080-022-3332

**에스티 로더 윤아 아시아 모델 발탁** 청순한 비주얼로 성숙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윤아가 에스티 로더 모델로 발탁됐다. 결정 없이 빛나는 그녀의 피부를 더욱 돋보이게 해준 시진 속 제품은 스킨케어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실크로이스트 멀티-리커버리 콤플렉스(갈색 병), 윤아는 앞으로 아시아 모델로 활동하며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문의 02-6971-3212



## BEAUTY



CHANEL.COM

# CHANEL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굴'  
경기도 광주 아홉칸집

이 집을 알게 된 후 온 좋게 몇 차례 더 방문할 기회가 생겼다. 서울에서 멀지 않지만 집 주변에 온통 너른 자연이 펼쳐지는 곳. 모든 창문에서 숲과 밭이 보이는 덕에 창가에 앉아 빛만 쬐고 있어도 좋은 집. 그렇게 그곳에 있다 보면 집이 주는 위로와 따뜻함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월월, 월월월”

마당에 차 들어오는 소리가 나자 아홉칸집을 지키는 코르뷔 지에가 목청을 높여 반긴다. 맞다. 르 코르뷔지에의 그 코르 뷔지에. 건축가와 건축, 그중에서도 르 코르뷔지에를 특히 좋아하는 이 집의 주인 고경애 · 이상욱 부부는 반려견인 프 렌치 불도그에게 코르뷔지에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 때 문에 이 집을 찾는 사람 중 건축에 조예가 있는 이들은 코르 뷔지에를 보며 “코르뷔지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건넨다. 코르뷔지에는 이 집을 설계한 네임리스건축이 “OK, 한번 지어봅시다” 하고 마음을 먹는 데 나름의 역할을 했다. 나은중 소장은 “설계를 의뢰하는 이메일을 받았는데, 거기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지금 만 두 살인 첫째 아이를 미래의 건축가로 키우고 싶은 야심 찬 꿈을 가지고 있어 키우는 강아지 이름도 코르뷔지에로 지었습니다.’ 건축에 대한 애정이 느껴져 만나기 전부터 호감이 생겼어요.”

그렇게 네임리스건축과 에이리(AeLe, 아내 고경애와 남편 이상욱의 이름을 한 글자씩 따와 조합한 이름) 가족은 건축가와 건축주로 경기도 광주 노곡리에 집을 짓게 된다. 서울

에서 가까운 곳에 이렇게 좋은 땅이 있었나 싶을 만큼 사방에 숲과 밭이 펼쳐진 이 집의 이름은 아홉칸집. 총 9개의 칸이 있다고 해서 이런 이름을 붙였는데, 구조와 미감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매력적이다. 우리 주변의 집을 생각해보자. 안방과 아이 방, 거실과 부엌 등으로 공간의 구획과 목적이 정확하게 나누어진다. 방에는 어김없이 문을 단다. 난방과 프라 이버시를 생각해야 하니 당연한 장치다. 그런데 아홉칸집에는 그런 ‘고정적 쓸모’가 없다. 네임리스건축을 이끄는 나은 중 · 유소래 건축가가 그런 최초의 설계 아이디어를 보면 반듯한 사각형에 + 표시가 한 줄에 3개씩, 총 9개가 그려져 있다. + 표시가 의미하는 것은 벽. 공간을 나눠야 하니 벽을 설치하긴 하되 한쪽 면을 다 막는 길고 두꺼운 벽이 아니라 칸 막이나 병풍처럼 최소한의 가림막 역할만 하는 벽이다. 그렇게 총 9개의 공간을 배치했는데, 부부 침실과 욕실에만 문을 달고 나머지는 모두 오픈해 계절의 빛과 바깥 풍경에 따라 거 실과 다이닝 룸, 서재의 위치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집에 햇빛과 바람은 꼭 있어야 한다”

생기 넘치는 집사, 코르뷔지에의 환대를 받으며 들어가 는 데 담는 집은 오늘도 아름답다. 구름도, 하늘도 그림 같은 초가을. 초록 정원을 지나 보이는 밭의 풍경이 한가롭다. 이 집에 있으면 마음이 푸근해져 폭 놀러왔고 싶어지는데, 곳곳에 일렁이는 밝고 환한 기운 덕분이다. 그런 기분이 들 게 하는 일등 공신은 아홉칸집의 중앙에 자리한, 동그란 천 창에서 쏟아지는 빛이다. 천창을 통해 집 안에 떨어지는 빛 의 덩어리는 해의 위치에 따라 계속 움직인다. 천창이 커 두 겹께 쏟아지는 빛은 아이들 책상도 비추고 주방 쪽 바닥으 로 길게 떨어지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길이와 형태를 바꾼 다. 코르뷔지에는 그 빛을 따라 계속 움직이면서 일광욕을 한다. 졸린 눈으로 그 빛 속에 앉아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귀엽던지.

고경애 씨 역시 가만히 앉아 빛 쬐는 걸 좋아한다. “요즘 날씨가 정말 좋잖아요. 밖에 나가 그 별을 느껴도 좋지만, 집에 들어오는 빛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집 식구 중 제가 집에 제일 오래 있는 만큼 항상 빛을 느끼는데, 아침부터 지



2



3



년까지 빛이 계속 머물러요. 그러다 보니 꼭 제 곁에 있는 것 같아,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햇살이 모두에게 쏟아지는 신의 축복이라면서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더라고요. 바람도 정말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다 여는데, 그러면 바람이 통하는 게 느껴져요. 통풍이 잘된다는 뜻이죠. 막힌 방이 많지 않아서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어요. 막 내가 칭얼대면 문 닫고 어디 가서 좀 쉬고 싶은데 주변을 돌아보면 다 열린 채 연결돼 있는 거예요. 남편한테 자기는 힘들 때 어디서 쉬었어? 하고 물어보니 화장실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있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고.(웃음) 저는 육아가 힘들면 그냥 울어버려요. 숨어서 울 때가 많지 않으니 장소를 가리지도 않죠. 그러면 애들이 와서 보듬어 줘요. 그런 식으로 가족끼리 더 끈끈해져요. 집에 햇빛과 바람은 꼭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아홉칸집의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는 마감재다. 평지붕의 긴 처마를 한 단층 집은 안팎을 모두 콘크리트로 마감했다. 심지어 욕조와 세면대, 주방 조리대와 테이블까지. 게다가 노출 콘크리트는 표면이 매끈하지 않고 거칠다. 에이리 가족과 네임리스건축이 서로 호흡을 맞추며 집을 지은 과정은 <코르뷔지에 네 오늘도 행복하니>란 책으로도 출판됐는데 ‘콘크리트’ 파트를 보면 거푸집을 떼고 드러난 거친 속살을 보며 나온중 소장이 마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때 에이리 가족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수정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두면 어떨까요? 거칠어서 좋아요. 크고 작은 흠과 깨진 모서리도 메우지 말고 그냥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천장에 물이 얼룩진 자국도 없애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동굴 같아서 더 좋아요.”

언뜻 미완성의 풍경을 상상할 수 있겠다. 하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한 집 내부는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 오히려 푸근하고 세련됐다. 집 밖은 온통 녹색의 자연. 풍경이 더없이 화려한 셈인데, 집 내부는 커다란 돌덩어리처럼 무딘하고 무심한 기운을 풍겨 계절에 따라 표정과 색을 달리하는 자연의 변화가 더 드라마틱하게 와 닿는다. 회색과 녹색의 콘트라스트도 좋다.

### 가구와 조명, 그림과 음악으로 빛나는 스타일

회색 콘크리트 집 안을 채운 가구와 조명은 한 점 한 점 모두 공들여 고른 ‘진짜로 좋은’ 것들이다. 고경애·이상욱 부부는 결혼일을 기념하며, 아이의 생일을 기념하며,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며 집에 들인 가구와 조명을 하나씩 신중하게 들여놓는다. 그렇게 이사무 노구치의 원형 테이블과 임스 부부의 다이닝 체어, 르코르뷔지에의 암 체어와 라운지 체어, 독일 가구 브랜드 E15의 원목 침대가 들어왔다.

최근에는 7개월을 기다린 끝에 E15에서 만든 원목 테이블을 받았다. “원래 3~4개월이면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지체됐어요. 상판부터 다리까지 두꺼운 목재로 만들어 아주 견고한 제품이에요. 우리 집에 있는 가



구는 거의 오래 기다렸다가 받은 것들이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걸 잘하거든요.(웃음) 가구도 건축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좋은 작품을 만나려면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그렇게 기다렸다 받으면 기분이 더 좋고요. 애착도 가고요. 아이들에게 물려줄 생각으로 고르다 보니 가볍고 금방 살 수 있는 물건은 안 고르게 되더라고요.”

결혼기념일에 LP 플레이어를 새로 들여놓았다. 미국의 트럼펫 연주자로 명성 높은 쳇 베이커의 음반도. 결혼한 첫해에 구비한 스피커 바우어앤윌킨스(Bowers&Wilkins)의 스피커에서는 인터뷰 내내 쳇 베이커의 명반 <싱스(Sings)>의 선율이 흘러나왔다. 집을 채우는 가구와 음악까지 하나하나 자신들의 리듬과 취향, 스타일로 채운 집. 아홉칸집에 가면 늘 좋은 기운을 얻는 이유다.

집을 빛내는 조연으로 고경애 작가의 그림도 빼놓을 수 없다. 그녀의 전작을 보면 우울하고 슬픈 기운의 작품도 많은데, 어느 순간부터 화폭에 별이 일렁이는 듯 화사하고 밝은 작품이 많아졌다. 화폭을 가득 메운 강아지풀 그림에는 작은 풀벌레가 앉아 있고, 아이들이 코르뷔지에와 마당에서 물놀이를 하던 날을 표현한 그림에는 파란 물줄기가 춤을 추고 분홍색 하늘이 펼쳐진다. 한눈에 마음을 빼앗기는 색감의 그림들. “색을 정말 잘 쓰시네요” 하고 말하자 고경애 작가가 화답한다. “이 집에 살면서 좋은 기운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정경을 시리즈로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빛같은 제가 상상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다 직접 본 거죠. 이곳에 있으면 빛이 분홍색으로도, 주황색으로도, 노란색으로도 보일 때가 있거든요.”

집을 짓게 되면 새로운 이야기가 쌓인다. 이전에는 미처 몰랐던 새로운 즐거움도 하나둘 약속처럼 찾아온다. 그러다 보면 집을 한 채 또 짓고 싶다, 이번에는 콘크리트 대신 나

1 자연과 함께하는 집은 계절과 시간, 날씨에 따라 수많은 표정과 이야기거리를 선물한다. 2, 3, 5, 8 아홉칸집의 하이라이트인 동그란 천창, 그리고 그곳에서 쏟아지는 햇빛. 아이들도, 어른들도, 강아지 코르뷔지에도 그 빛을 따라 눈과 몸을 움직인다. 4 가을이 내린 후원 전경. 앞마당과 뒷마당이 있다는 건 아홉칸집 최고의 호사다. 6 계절에 따라 수시로 가구 배치와 가는 그림을 달리하는 가실. 7 주방 풍경. 겨울이 되어 나뭇잎이 다 떨어지면 사야 가능한 멀리까지 트인다.



무집을 지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든다. 지금 사는 집이 싫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또 다른 집과 삶을 꿈꾸게 되는 것이다. 계속해서 더 좋은 삶을 계획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집 짓기가 주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싶다. 에이리 가족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이고도 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딸아이는 산타 할아버지가 와야 하니까 굴뚝이 꼭 있어야 한대요. 이들은 2층집을 지어야 한다고 하고, 집을 짓고 나면 그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꿈이 생기는 것 같아요. 좀 더 잘 살고 싶고 좀 더 행복해지고 싶은 거예요. 이 집 위에 한 층을 올릴 수도 있고, 뒤뜰에 추가로 집을 지을 수도 있을 듯 해요. 집 짓는 이의 행복과 보람을 또 한번 꼭 경험해보고 싶어요. 그때도 건축가로는 물론 네임리스를 택할 거예요.”

고경애 작가는 집을 사람에게 빔대 이야기하곤 했다. 이제 세 살이 됐다고, 어떻게 변해서 어떤 풍경을 보여줄지 기대가 된다고. 예전에는 몰랐던 모습을 한 해 한 해 새롭게 보게 된다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은 겨울이에요. 다 비워지는 시간이지요. 나뭇잎이 떨어져 주방 창문 너머 저 멀리 세종마을로 들어가는 길까지 보여요. 여름에는 보이지 않던 풍경이죠. 이사를 온 첫해에 겨울 기온이 영하 17°C였어요. 작년에는 따뜻했는데, 그러다 보니 올해 벌레며 개구리가 엄청 많아지더라고요. 잔디밭에서 뱀이 개구리 잡아먹는 걸 우리 집 식구 모두가 거실 창으로 본 적도 있었어요. 생태계라는 게 정말 예민한 거구나, 처음 느꼈어요. 집이 어렵게 지어지는 걸 봤고 자연 속에서 살고 있으니 아이들이 커서도 자기 시간을 충실히 살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뒤뜰에 놓인 사다리를 타고 옥상에 올라가보았다. 뒤쪽으로 펼쳐진 숲이 특히 아름다웠다. 곧 저 숲에도 깊은 가을과 겨울이 찾아들겠지, 하는 생각만으로 그곳을 바라보는 시간이 좋았다. 글 정성간(한점갤러리 클립 대표)